



건강 관련서적 출판이 늘고 있다

최근 당뇨병을 비롯한 성인병의 발병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따른 건강관련 부대사업도 전례없는 호황기를 맞고있다.

특히 출판분야는 국민의 지적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관련서적의 발간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각종 정보들이 범람하게 되면서 타당성이 희박한 편협한 주장까지도 여과없이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계 전문가들은 성실하고 양심적인 저자와 현명한 독자라는 올바른 위상정립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재와 자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건강서적 출판물

복잡다단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고도로 발달한 생활수준만큼이나 첨단화된 각종 질병에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국내에서도 인류최대의 고질병이라는 AIDS(후천성면역결핍증)가 연이어 발병하는 등 마치 매일매일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투라도 벌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의식속에서 사람들은 자연히 나도

무엇인가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행위라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가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3년 전부터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증폭



돼 건강유지를 위한 노력과 연구 개발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이나 노력들도 폭넓게 늘어나 기초적 체력단련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건강지식을 얻는데도 열성적인 학구파들이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편승, 건강에 대한 서적출판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제 건강관련서적들은 서가의 한귀퉁이에서 겨우 구색맞추기나 하던 예전과 달리 대형서점 내에서도 중앙에 진열되는등 베스트셀러로서의 잠재적 역량을 엿보이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건강관련서적들은 그야말로 학술적인 전문서적에서부터 기초건강, 정신건강을 알기쉽게 풀이한 어린이용 책자까지 다양하기 이를데 없다.

서울의 경우 종로서적만도 4백여종의 건강관련서적이 진열돼 있으며 얼마전 문을 연 영풍문고에는 5백권이 넘는 책자들이 진열돼 고조되고있는 사회적 관심도를 입증한다.

이중 당뇨병은 고혈압, 암과 함께 건강관련서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골메뉴. 이는 당뇨병이 교육을 통해 지식을 얻고 이를 토대로 자기관리를 꾸준히 해야하는 만성병인 탓이다.

서적성격에 따른 전문저자 선별 필요

당뇨병을 다룬 책자들중 소위 대형서점에서 판매중인 책자는 대략 20여종으로 추려볼 수 있겠다.

당뇨인의 건강수첩, 당뇨병백과, 당뇨병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당뇨병완치 한방 가정요법, 소아당뇨병의 생리적 조절, 당뇨병을 고친 사람들, 당뇨병 식사요법 365일, 고혈압과 당뇨병등이 그것으로 주로 당뇨병에 대한 이해와 치료법에 대해 저자 나름대로의 방법과 학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책중에서 당뇨인의 건강수첩은 84년도에 출판돼 나와 비교적 장수하는 책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외에도 매년마다 출간되는 책들은 꾸준한 수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로서적에만도 올해 벌써 5권의 신간이 나왔으며 올연말까지는 더욱 많은 책들

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의 내용은 물론 편집도 더욱 새롭고 다양해져 전문영역이라는 딱딱하고 골치아픈 이미지에서 벗어나 칼라풀한 색감과 시원시원한 편집디자인으로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면에 집필한 저자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큼 의학에 권위있는 유명인사가 있는가하면 약력소개도 없이 이름석자만 겨우 밝힌 경우도 있어 기본적인 제작태도를 의심케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당뇨병관련서적 20여종 선 보여

이제 건강서적 출판은 소규모의 전문출판사뿐 아니라 국민일보를 비롯한 일간지, 대형출판사 등에서도 뛰어들고 있어 사업성 있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건강관련서적을 내는 출판사 중 가히 선두라고 일컬을 수 있는 태웅출판사의 조종덕씨는 건강분야의 출판에 대해 다른 인기서적과 달리 영입에 어려움이 많

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상업적인 이윤에 집착하기보다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얘기다.

태웅출판사가 처음 문을 연 5년 전만해도 건강서적의 출판과 판매는 겨우 명맥만 이어갈뿐으로 한달동안 고작 10권에서 30권 정도가 판매되는 형편이었다고. 그러나 요즘들어서는 건강서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 태웅출판의 당뇨관련서적만해도 한달에 보통 1백권에서 1백50권이 나갈 정도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조종덕씨는 건강관련출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책내용을 지나치게 전문화시키지 않고 일반 독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하며 자신의 건강관리를 스스로 해줄 수 있는 진정으로 도움되는 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운내용으로 독자에게 어필해야

한편 단행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건강과 관련한 월·계간 잡지들도 앞다투어 창간, 나름대로



**책자의 내용은
물론 편집도 더욱 새롭고
다양해져 전문영업이라는
딱딱하고 골치아픈 이미지에서
벗어나 칼라풀한 색감과
시원시원한
편집디자인으로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잡지는 시중판매되는 유가지만 해도 1천여종이 넘는다. 이중 한국잡지협회가 지난 5월에 발표한 한국잡지 총목록을 보면 건강과 관련된 잡지만해도 30여종을 헤아린다.

관련잡지를 살펴보면 건강과 근육, 건강과 운세, 건강과 생명, 건강다이제스트, 건강단, 건강라이프, 건강만세, 사우나폴장 건강백과, 생약과 건강, 자연건강, 장생, 간호저널, 생활간호, 월간당뇨, 성인병과 건강, 성인병 예방과 치료, 의림, 중앙의학, 중의잡지, 진단과 치료, 치과계, 치과연구, 치과임상, 최신의학, 한국의 침구, 한방과 건강, 가정복지와 여약사, 약국, 임상약학, 의학정보등으로 주제별 세분화에 힘쓰고 있다.

이중 월간당뇨는 당뇨분야의 국내유일한 잡지로서 지난해 12월 창간 3주년을 맞은 바 있다. 특히 당뇨병은 생활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각종 치료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점차 잡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가는 추세이다.

이는 지난 4월에 발표된 연구 논문중 당뇨병 전문잡지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중 29.2%(49명)가 당뇨병 전문잡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필요하다고 23.2%(39명)이었다. 따라서 전체응답자의 52.4%가 당뇨병 전문잡지를 필요하다고 꼽은 것이다.

반면 전문잡지가 필요치않다는 대답도 27.3%(46명)이나 돼 여전히 전문잡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응답자중 남자가 여자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당뇨병 전문잡지에 대한 필요성과 구독욕구를 크게 느끼고 있음이 밝혀졌다.

건강관련 전문지의 필요성

어쨌든 건강관련서적의 출판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것은 충분히 환영할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사회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는 지적처럼 미처 걸러지지 못한채 쏟아지다시피하는 각



**건강관련서적들은
서점의 한귀퉁이에서 겨우
구색맞추기나 하던 예전과
달리 대형서점내에서도 중앙에
진열되는등 베스트셀러로서의
잠재적 역량을 엿보이고
있다.**



종 정보속에서 표류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는게 병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잘못된 지식의 습득은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책은, 저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 다시말해 저자, 출판업자의 무책임으로 타당성을 잃은 주장이라면 독설에 다름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수많은 책들속에서 과연 나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책이 어느것인지 현명하게 취사선택하는 직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관련책을 고르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않다면 나와있는 책중에서 자신이 직접 읽어보고 고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작위로 나와있는 책중에서 가장 적합한 책을 고르기란 말처럼 쉬운일이 결코 아니다.

우선 나와있는 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사전지식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먼저 저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일에 유념해야 한다.

저자가 그방면에 학식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안심해도 좋을 듯. 특히 건강분야는 일반 창작문예물과 달라 기본적인 학설과 과학적 근거들이 명확히 제시돼야함을 명심해야한다.

책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창조하는 반면에 표나지않게 황폐화하고 퇴화시킬 수도 있다.

때문에 올바른 책자를 통한 정확한 지식의 습득이 전제돼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당성있고 양심적인 출판문화의 정착이 시급히 필요한 것이다. <민>